

# 대만, 대륙의 언어발전 : 한자의 「整理」와 「改革」

周 行 之

요 약

I. 한자의 특성

II. 한자문제의 분석

III. 대만·대륙의 대비

IV. 결 론

요 약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는 부호이며 언어의 발전과정에서 그 변화가 가장 현저하게 보여진다. 그리고 문자는 문화의 추세와 영향을 반영한다.

## 1. 한자의 성질

1. 유구한 문화 전통을 갖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자의 기원은 기원전 4천여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방대하다. 과거 동방의 일부 민족들이 사용해 왔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일본이 한자를 일부 사용하고 있다. 즉 한자를 專用하는 민족은 기타 다른 민족보다 많다.

3. 한자는 「意·音·形」의 3요소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한자는 음으로써 뜻을 나타내는 표음문자와는 다르다. 비록 현대의 한자가 「象形」의 원래 모습을 이탈했다고는 하지만 字形은 여전히 인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현재 사용하는 한자인 隸書(楷書라고도 칭함) 역시 2천여년 전에 사용되었으며 오늘날 사람들이 漢代의 자료를 보는데 그다지 큰 어려

음을 겪지 않고 있다. 이는 어떠한 표음문자에서도 보기 어려운 것이다.

4. 한자와 한어가 밀접하게 배합되어 있다. 한어는 기본적으로 단음절의 고립어이다. 즉 하나의 음이 하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의 「詞」를 구성한다. 한자는 獨立의 「形」으로 하나의 「詞」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詞字」체계는 한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며 표음문자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언어의 필요에 따른 산물로서 優劣의 구분과는 무관한 것이다.

5. 한자체계의 발전. 처음에 「象形」(그림), 「指事」(부호)에서 발전하여 「會意」(앞에서 언급한 문자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고 종합적인 뜻을 표시함), 「形聲」(문자를 결합하면서 부분적으로 뜻을 표시하고 부분적으로 소리음을 표시하는) 등 4 종류를 만들고 「假借」, 「轉註」로서 문자를 만들고 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삼았다.

한어의 「四聲」은 音數를 증가시켰다; 한어는 하나의 글자에 여러 의미를 줌으로써 「詞」수를 증가시키고 「字」수는 증가시키지 않았다. 이는 언어발전에 있어서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현상이다.

## 2. 한자문제

어떠한 문자의 체계도 모두가 우수한 면과 어려운 면을 갖고 있다. 한자는 수천년의 발전과정을 거쳤지만 오늘날에도 字수의 과다와 복잡성 때문에 이를 인식하고, 쓰고, 사용하는데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한자의 「整理」, 「改革」에 대한 주장들이 있었다. 전자에 대한 주장은 점차 한자를 정리하고 사용을 합리화하고자 하였으며 후자는 심지어 한자를 소멸하고 字體를 단순화시켜 라틴어의 음을 취함으로써 한어를 라틴화하고자 했다.

## 3. 대만·대륙의 대비

중화민국 각기 정부는 일찌기 대륙에 있을 때부터 언어·문자의 정리공작을 추진해 왔다. 예를 들면 민국 2년(1913년) 北平音을 「국어」의 기준

음으로 결정하였으며 「語意字母」를 제정하여 민국 8년 전국에 공포했다. 또 민국 17년 「國語 로마자」를 제 2주음부호로 공포하고 민국 21년에는 「國音常用字彙」 등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민국 24년 최초의 簡體字를 규정하여 공포했으나 사회의 반대에 부딪쳐 취소되었다.

### 1) 대만지역의 한자정리

대만지역에서 羅崇倫 선생이 민국 43년에 簡體字 채택에 관한 건의를 한바 있고 何應欽 선생이 민국 58년에 이를 다시 제의했으나 사회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한자의 정리공작에서 대만은 대체로 옛것을 살리지만 복고주의 경향을 취하지 않고 簡化작업을 하되 지나치게 하지 않으며 質을 증시하지만 量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이에 의거하여 정부와 민간에서 字型的 정리, 字義에 대한 주석, 字音과 字量의 정리공작 등을 실시했다. 이때부터 많은 성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학술단체가 이들을 연구하고 교육부가 「常用」, 「次常用」, 「罕用」字體 표준표를 공포했으며 중고등학교·국민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과 주석자료를 조정·수정했다. 출판계 역시 각종 字典을 개정하였으며 교육기구와 학자들이 國音표준彙編을 출판했다. 이로써 이들의 성과가 교육·문화 등의 부문에 폭넓게 반영되었다.

### 2) 대륙에서의 한자개혁

중공의 역대 지도자들은 한결 같이 「한자의 簡化」를 주장했으며 한자·한어의 「라틴화」를 모색했다. 그들은 문자의 장악이 정권장악의 조건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전세계가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언어 역시 민족언어가 세계언어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瞿秋白, 毛澤東을 필두로 모두가 한자의 라틴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중공정권수립 이전부터 이런 운동을 전개하여 문화적 성격의 투쟁수단으로 삼았다. 정권획득 이후 더욱 강력하게 한자의 簡化를 실시하고 「拼音方案」을 제정하여 「普通話」의 확산을 한어 라틴화의 기초로 삼았다.

그러나 한어·한자의 특성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정치력을 빌어 「한자간화방안」, 「한자간화總表」를 전대륙에서 추진하였지만 사실 그 시행이 벽에 부딪혔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1977년 「제2차 한자간화방안」을 제기하고 1979년부터 정식으로 라틴화 작업을 중지했다.

語音 측면에서 한어의 라틴화 도구인 「拼音方案」은 단지 주음부호의 역할만을 할 수 있었다. 한자의 簡化작업은 이미 좌절되었으며 「普通話」의 추진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 4. 결 론

한자체계와 拼音체계는 각자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각자의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로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세계 각 민족은 모두가 언어의 특성과 역사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통합적으로 사용되는 문자는 어떤 소수의 뜻에 따라 개정될 수 없으며, 강압적인 개정정책 역시 성공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문자는 전체 사회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자유사회에서는 사회문화의 발전에 따라 자체적인 조정을 거칠 뿐이며 소수의 이익에 좌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대륙의 언어와 그 변화는 민주와 자유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역대의 한자와 관련된 논쟁은 주로 한자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한자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철저히 추진하고 학습자들이 현재 사용하는 字體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하는 것 이외에 한자의 구조 원리와 역사적 발전현상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것을 正字로 하고 어느 것을 繁字로 하고, 어느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어느 것을 簡化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두가 共感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자와 관련된 일체의 분쟁을 일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제반 발전과정에서 문자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문자와 口語는 상호제약 기능을 하며 여기에서 그 문화의 특질과 수준이 반영된다. 중화민국의 대만지역에서 언어·문자의 발전은公私의 주목을 깊게 받았으나 특기할만한 선전이나 운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 성과는 문학·교육 및 정치·경제의 성과에서 나타난다. 대륙의 언어·문자 상황에 대해서도 대만의 학자들은 깊이 있는 연구를 해왔다.<sup>1)</sup> 본 논문에서는 대만·대륙의 한자에 대한 「整理」와 「改革」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 1. 한자의 특성

1. 유구한 문화·전통·한자의 기원은 알려진 바와 같이 기원전 477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sup>2)</sup> 이집트와 서마리아(Sumerian) 등의 문자체계와 비교할 때 한자는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 문화적인 영향도 극동지역에 널리 미쳤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2. 사용자의 범위가 방대하다. 표음문자계통은 주로 인도유럽계(Indo-European)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에 영어·독어·불어·

1) 중국대륙의 한자개혁을 연구한 많은 글중에서 필자가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고 내용이 광범하고 실상을 상세하게 언급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들 수 있다.

汪學文, 「中共文字改革與漢字前途」[中共文字改革으로 약칭], (臺北: 國際關係研究所, 1970년).

汪學文, 「中共簡化漢字之研究」[中共簡化漢字로 약칭], (臺北: 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1977년).

汪學文, 「中共文字改革之演變與結局」[中共文字改革演變으로 약칭], (臺北: 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1983년).

2) 西安지방에서 발견된 陶器文字를 가리킨다. 이러한 象形文字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李孝定은 「이는 일부 한자의 원시적 형식」이라고 확신하며 필자도 이에 찬성한다. 李씨의 의견은 그의 저서 「漢字的起源與演變論叢」(臺北: 聯出版事業公司, 1986년) pp.192~194, p.205, 부록도표 3-1, 3-2, 3-3.에서 설명되고 있다.

러시아어 등으로 분화되었다. 그중에서 영어는 현재 이미 세계적 통용어가 되었지만 한어를 전용하고 있는 민족이 수적으로 가장 많으며 한국·일본 등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3. 「意·音·形」의 3요소를 견비하고 있다. 音으로 뜻을 전하는 표음문자에 비해 한자는 形으로 더욱 뜻을 잘 나타낼 수 있다. 商·周시대의 문자에는 象形적인 특색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이후 비록 획의 통일로 字體가 점점 象形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山·川·日·月·金·木·水·火」 등의 기본자(문자학상 「初文」이라 칭함)는 그 자체로 여전히 뜻을 전할 수 있다. 문자학에 대한 약간의 기본지식을 갖추면 어렵지 않게 현행 한자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商·周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또한 현재의 한자(문자학에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隸書」라고 부르며 서예에서는 글자 모양과 관련하여 「楷體」라 부른다)는 그 기원이 戰國시대 말기이며 西漢초기부터 널리 성행하였으며 오늘날까지 2천 수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당시의 문헌(예를 들면 帛書, 木簡 등)을 읽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는 표음문자를 사용하는 민족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 4. 한자·한어의 密合

한자가 계속해서 獨存·獨新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민족의 융합장성, 국가의 통일확대, 文化의 일관적 발전이외에 「語」와 「語」의 密合에 있다.

한어는 기본적으로 「單音節」의 「孤立語」(isolating language)이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의 음절 혹은 「音素」(morpheme)가 하나의 뜻을 나타내며 單音의 詞(word)를 형성한다. 또한 「詞」자신은 人稱, 數量, 時態, 動詞, 名詞 등의 변화를 하지 않는다. 문자를 통해 표시할 때 즉, 하나의 「詞」, 「字」가 독립적인 「形」을 가지며 「意, 音, 形」이 일체화 된다. 이러한 언어에 대해서 일찍이 서방 언어학자들은 유치한 문화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으며 서방과 같이 새로운 문자를 제정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서방 언어학자들은 한어·한자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양자간에 합리적이고 당연한 관계가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sup>3)</sup> 한어의 「詞」는 「字」에 의지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한자는 하나의 詞를 포함한다. 이 때문에 서방 학자들은 모두가 「詞字系統」이라 부른다.<sup>4)</sup>

일반적으로 말해 「詞字」는 圖畫式·符號式 및 이를 조합한 문자(한자는 「象形, 指事, 會意」 등의 字를 갖는다)로 개발될 수 있다. 그러나 고도로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점 때문에 선천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sup>5)</sup> 일부 민족이 채택하고 있는 표음문자는 주로 배합언어의 특성을 가지며 역시 결함을 갖고 있지만 전통적인 요소를 돈독히 해야 할 필요를 갖지 않는다. 한자는 密合언어로서 뿌리깊은 기초를 갖고 있으며 그 자체에 하나의 潮流를 형성한다.

한어는 時·空의 영향으로 같은 원류에서 파생된 여러 종류의 方言을 갖고 있지만 문자의 제약기능은 국가·민족·문화의 통일을 형성시켰다. 언어의 변화는 문자를 통해 그 근원을 더듬어 볼 수 있으며 한자의 발전은 언어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때 한자는 중화문화의 구체적인 상징이자 계승도구였다.

### 5. 한자의 역사발전

중국 문자학에는 전통적으로 「六書」의 분류를 갖고 있다. 즉 「象形」(圖畫), 「指事」(符號), 「會意」(두개 이상의 문자를 집합하여 종합적인 의미를 표시함), 「形聲」(일부는 의미를 나타내고 일부는 語音を 표시함), 「假借」(같은 음을 가진 詞의 字形을 빌어옴), 「轉注」(의미가 동일하고 음이 유사하며 形이 다른 문자)로 분류된다.

앞서 언급한 것 중에서 앞의 3종류는 모두가 표준 「詞字」라 칭할 수 있다. 「形聲」이 대량으로 발생한 것은 語音を 배합하고 「詞字」의 결함을

- 3) Michael Girsdansky, *The Adventure of Language*, revised and edited by Mario Pei (New York : Fawcett World Library, 1967), pp. 218~19.
- 4) Victoria Fromkin & Robert Rodman, *An Introduction to Language*, 2nd Ed.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78), pp. 359~360, 365.
- 5) 同前註.

보완하기 위해 발전된 것이다. 形聲字 역시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聲符」(語音의 부분을 대표)로서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 예를 들면 「或」의 원래 의미는 「國」이며 「或許」의 뜻으로 차용된다. 그러나 여기에 「口」를 더하면 다시 「國」이 되며 「或」에 「土」를 더하면 「域」으로 「疆域」의 의미를 표시한다. 대체로 이러한 류의 글자는 語意가 문화에 따라 점차 확대된 것이며 原字에 「形符」를 첨가하여 명확하고 세밀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聲符가 원래의 의미를 겸하지 않고 별개의 語·詞音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舍」는 원래 「房舍」의 의미인데 先秦文獻(예를 들면 論語)에서 「捨棄」의 「捨」로 차용하고 있다.<sup>6)</sup> 원래 의미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후일에 「手」를 첨가하여 「捨」로 하였다. 대체로 이러한 것들은 「詞字」 조성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假借」에 대해 東漢의 許慎은 說文解字에서 「本無其字，依聲託事」라 정의했으며 이는 妥貼이다 부를 수 있다. 假借는 다시 「用字」와 「造字」의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舍」를 차용하여 「捨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用字假借라 할 수 있으며 「舍」로서 「捨」를 만든 것은 造字假借라 할 수 있다.

「轉注」의 한 해석에서는 예전부터 異義가 많았음을 밝히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音이 유사하고 의미가 동일하며 字形이 서로 다른 문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자는 원래 한사람에 의해 한 시기, 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당시의 수요에 적응하며 각자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或體」(어떤 字의 또다른 형태)와 「重文」(어떤 字와 중복된 문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자의 시기와 조성문제 예를 들면 「迹跡」과 같이 意와 音이 동일한 다른 형태의 글자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자의 단순화를 통해

6) 論語에서 「金」으로써 「捨」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用之則行, 舍己則藏」.(述而第七.).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이치를 설득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한자의 창조 초기에는 없었던 「六書」와 같은 원칙이 규범으로 되었고 수천년의 발전을 경과하면서 중복부분이 불가피했지만 창조시기부터 반드시 보고서 인식할 수 있고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sup>7)</sup> 또한 「約定俗成」<sup>8)</sup>을 위해서 당시는 물론 후세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 따라서 문자의 중복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한자 사용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옛부터 중복된 文·體가 그 나름대로 특정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은 併合할 필요가 없으며 옛 서적을 다시 인쇄할 때도 이를 고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많은 분류를 초래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어는 기본적으로 단음절이다. 인류가 발전시킬 수 있는 소리는 비록 많지만 어떠한 민족도 語音을 운용하는 데는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한어는 「子音」(consonants)이 비교적 적어 音素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대략 400여개이며 수요에 적용하기 위해 「四聲」을 채용하여 音數를 늘렸으며 單詞를 결합하여 複詞를 만들음으로써 어휘를 늘렸다.<sup>9)</sup>

「四聲」의 구분은 예전과 오늘날이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다. 오늘날 「國語」(대륙에서는 普通話라 부른다)를 기준으로 약 1천 4백여개의 單音을 갖고 있다.<sup>10)</sup> 그중 어떤 음은 同音자가 매우 많다. 예를 들면 「意」와 같은 음의 글자는 백개 이상이며 어떤 것은 겨우 한두개의 동음자를 갖는다. 字形의 구분이 없이는 詞意를 구분할 수 없다.

여러개의 單詞를 결합하여 複詞를 구성한 것은 한자발전의 또다른 현상이다. 문자를 사용해 표시할 때 전통적으로 부르던 「連綿」字를 형성하게

7) 許慎의 說文解字중 「指事」에 관한 定義를 인용.

8) 荀子, 「正名」篇.

9) The adventure of Language, p. 220.

10) 예를 들면 臺灣省國語推行委員會가 펴낸 「國音標準彙編」(臺北: 開明書局, 1952년)에서 12,319字, 1,428音을 수록하고 있다.

된다. 그러나 複詞의 증가로 字形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예를 들어 「意義, 異義, 異識」, 「郵票, 油票」 등 일상용어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를 만약 合併한다면 구분이 어려우며 折音化한다면 더욱 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게 볼 때 한자의 簡化(특정 同音字로 나머지 同音字를 대표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와 획의 단순화가 造字원칙과 用字관습을 배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만약 한자를 拼音化한다면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聲波語音學」(Acoustic Phonetics)에서도 같은 사람이 내는 발음도 그때 그때 다르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음문자는 단지 그 개황만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언어는 시기,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표음문자 역시 밀접하게 배합되기 어려우며 字形의 안정성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것은 표음문자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면 모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한자체제와 표음체제는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으며 우열을 구분할 수는 없다. 표음문자는 일부 언어에 적합한 대발견이며 한자는 한어에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어려움을 최소화한 창작이다.<sup>11)</sup> 일부 대륙 人士들과 같이 표음문자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그 단점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sup>12)</sup> 실제의 사실을 보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 II. 한자문제의 분석

종합적으로 말해 한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sup>13)</sup>

- 11) Bernhard Karlgren, *Philology and Ancient Chinese* (Oslo : H. Aschehoug & Co., 1926), p. 37.
- 12) 예를 들면, 中共의 中國語文新誌社가 펴낸 「拼音文字和漢字的比較」(仁海 : 中華書局, 1954년)의 각 篇.
- 13) 中共의 한자에 대한 비판은 통상 「四難」으로 불린다. 즉 難認, 難記, 難寫,

1. 수량이 많고 복잡하다. 현재의 한자수는 약 5만자다.<sup>14)</sup> 실제로 字典에 수록되어 있고 古今의 文獻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常用字는 5천여자 次常用字는 6천여자다. 나머지는 희소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비교적 상세한 통계숫자는 「台灣之漢字整理」란 글에 나타나 있다). 일반적인 字典에는 약 1만자 정도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도의 문화수준을 갖춘 독서와 작문을 하는데 충분한 숫자다. 비교적 문화수준이 낮을 경우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은 그 교육정도에 따라 사용하는 字수의 다름이 다르다. 그러나 그 때 문에 문자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다. 한자중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은 「역사언어학」(Historical Linguistics)상의 진귀한 자료로서 특정시기,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 해주며 경솔하게 폐기해서는 안된다.

요전대 언어·문자발전의 원리로 약정된 것을 임의로 고치거나 위배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甲骨·金文에서 많이 사용한 「住」는 후일에 「維」를 파생시켜 維繫를 나타냈고, 「惟」는 思惟를, 「唯」는 唯諾을, 「帷」는 帷幕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가 構字원리에 부합된 것이다. 그러나 사용습관상 앞의 3字는 모두 서로 통하며 심지어 正字를 대체하기도 한다. 즉 한자의 라틴화를 위해 힘쓰는 中공에서 최근 출판한 字典에서는 「思維」라는 詞 이외에 「唯恐」, 「惟恐」을 함께 나열하고 있다.<sup>15)</sup> 이는 사실이 용변을 이긴 것이지만 문자개혁이 造字, 用字원리를 위배하면 그 결과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표음문자를 보면 英文을 그 예로 할 때 영국의 옥스포드(Oxford) 자전

離用이다. 中공의 자료는 많으나 대개 유사하다. 종합적인 설명에 참고할 만한 것은 汪學文의 中共簡化漢字, pp. 10~17.

14) 康熙字典은 42,174字를 수록했으며, 中華書局은 14년에 中華大字典에서 44,908字를 수록했다. 中華文化研究所 등이 공동으로 펴낸 中華大辭典은 5만자를 수록했다고 말하나 실제로는 49,905字를 수록했다.

15) 北京外國語學院英語科에서 펴낸 「漢音詞典」(商務印書館, 1978년 北京初版), p. 648, 716.

에 60여만, 미국의 웹스터 제 3 신국제사전(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40여만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한자를 라틴화하게 되면 한자의 詞는 증가시키되 字는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우수한 면이 없 어지게 된다. 각 詞가 독립적으로 되고 새로운 字가 증가할 것이다. 「詞」가 句中에서 뜻이 분명해지는 것이라면 이는 한어의 어법구조와도 관련되며 라틴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고도의 문화를 지닌 문자체계는 깊은 역사적 근원을 갖기 마련이며 단 번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 2. 인식하기 어렵고 쓰기 어렵다.

어떠한 문자체계를 막론하고 문자를 복잡하게 세분하고 단순화하려는 현상이 동시에 존재한다. 전자는 의미를 분명히 세분하기 위한 것이며 후자는 사용의 편리를 위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언어의 유형부호인 문자는 반드시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대중이 함께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표음문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면 영문의 knight, night; to, too, two; rite, write, right, wright는 모두가 동음에 속한다. 그러나 字形을 통해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에 대한 계의가 있음에도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문자의 안정성은 字形에 있다. 한자는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 字劃이 증가하였으며 표음문자는 점점 글자가 길어졌다. 따라서 이 들을 임의로 축소할 수는 없다.

동시에 문자는 「변동성」을 갖고 있다. 사용상의 편리를 위해 한자의 획이 곡선에서 직선으로, 圓에서 方으로 변했다. 여기에서 字의 생략이 생겨나고 「行書」, 「草體」가 출현했으며 결국 簡體字를 탄생시켰다. 표음문자도 필기체, 인쇄체의 구분이 있으며 縮寫字(abbreviation)를 사용한다. 繁簡의 취사선택은 문자 구조원리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간체화된 문자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뜻을 갖게되며 이 글자의 正體字의 획들은 불합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필기에 대해 언급하면 개인이 문자를 기록할 때는 간편한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과 통신을 할 때는 상대방이 글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공적인 작품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오해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한자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언급하면 획이 적다는 것은 반드시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干, 干, 于」와 같은 글자를 가르칠 때는 상세한 설명이 첨가되어야 한다. 반대로 획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龜, 龍」이 「龜, 龙」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斗, 鄧」이 「鬥, 鄧」보다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sup>16)</sup> 더구나 「斗」가 「鬥」를 대신하면 의미를 혼동하기 쉬우며 「龙」이 「龍」을 대신하면 「犬」과 유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예는 수없이 많으며 이들은 모두 소위 字理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 3. 사용이 어렵다.

어떤 사람은 한자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검사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字典의 배열을 部首, 筆形, 筆劃에 따라 하는 것은 모두가 불편하다는 것이다.<sup>17)</sup> 또 어떤 사람은 字體가 많고 구조가 복잡하며 배열도 적절한 방식이 없어서 실제 사용상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필기, 기록, 타자, 인쇄, 전보, 신호전달 등이 표음문자에 비해 더욱 많은 노동력을 들어야 하며 현대 과학기술의 최신성 성과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또 한자와 같은 표의문자는 외래어의 표기에 부적당하며 선진과학, 문화, 기술의 滲透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말한다.<sup>18)</sup>

16) 中共〈中國文字改革委員會〉의 「簡化漢字總表」(홍콩 : 三聯書店, 1978년), p. 7, 12.

17) 宋平, “漢字有『三多』, 『五難』, 進行改革有必要”, 홍콩新晚報, 1973년 1월 4일.

18) 張世祿, “漢字的改革和簡化”, 光明日報, 1955년 7월 6일, 20일.

한자의 배열은 분명히 표음문자처럼 편리하지는 않다. 그러나 字典을 편찬할 때 部首, 획, 注音, 4각부호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보완하고 있다. 만약 이점 때문에 한자체계를 버린다면 음식이 목구멍에 막혔다고 단식하는 것과도 같다. 선진 과학기술과 문화를 이용·흡수하는 면에서도 능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대만에 들어온 뒤 한자수록 방법이 여러가지 생겨났으며 지금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자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문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에 대한 견식을 갖추어야 한다.

요컨대 대륙에서 문화·과학기술 등의 위기는 주로 정치·경제·사회 등의 문제로부터 기인되었다. 이를 한자의 탓으로는 돌릴 수 없으며 전통과 外界 문화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 Ⅲ. 대만·대륙의 대비

한자·한어의 발전에 대해 대만·대륙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은 「整理」를 중시하고 한편은 「改革」을 중시하는데 모두가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다.

청나라 말기에 이미 簡字와 「切音(拼音)」新字, 「官語拼音」을 제창한 사람들이 있었다. 중화민국 수립 이후 즉 民國 2년(1913년) 「讀音統一會」는 북경 발음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한자의 획을 簡化하고 語音符號를 채택하였으며 「注音字母」(후일 「注音符號」로 불림)를 제정하였다. 民國 5년에는 「國語研究會」가 조직되어 전국 언어의 통일을 추진했다. 民國 8년, 「國語統一籌備會」가 조직되고 注音字母가 전국에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民國 17년에는 다시 「국어 로마자」(로마자모를 사용해 音標로 ㄴ한 것. 후에 譯音字母로 불림)를 공포하였다. 民國 21년, 「國音常用字彙」를 발표하고 語音표준을 정정하여 실상황에 부합되도록 했다. 그밖에 民國 24년 8월 교육부가 「第1차 簡體字」(324자)를 발표했으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다음 해 이를 취소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종 조치의 목적은 언어·문자의 「整理」에 있었으며 이러한 면은 중국 국민당의 1927년 집정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그러나 중공의 일관된 목적은 한어를 라틴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민족형식」이라 부를 수 있는 注音符號를 배척하고 「國語로마자」에 반대했다. 심지어 「國語」란 말을 「普通話」로 바꾸었다.

### 1. 대만지역의 한자정리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에 옮겨온 이후 40년간 문화에 대한 태도와 조치는 주로 우량한 전통을 존중하고 외래문화를 적절히 흡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자의 「라틴화」는 지금까지 사회의 주요한 분위기를 형성하지 못했다. 한자의 簡化에 대해서는 두차례의 제의가 있었다.

민국 43년, 羅家倫은 「簡體字의 제창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글을 발표하고 후에 단행본을 출판했다.<sup>19)</sup> 羅 선생은 이미 통용되고 있는 簡體字 15개 예를 들면 「花—華, 缺—闕」 등을 지적하는 한편 「取古簡體」에 따라 「肩—啓, 礼—禮」 등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는 「漢魏碑의 탁본」에서 「灵—靈」과 같은 簡體字를 채택하고 公文과 민간상용자에서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簡化偏旁과 部首를 건의했다. 羅 선생은 총 336자를 제안했다. 이 건의는 사회 각계 각층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되지 못했으며 그 주요 이유는 유행을 채택한 후 옛서적을 읽을 수 없고 繁體字와 簡體字를 병행하게 되면 어려움이 더욱 증가한다는 점이었다.<sup>20)</sup>

민국 58년 4월 何應欽은 국민당 10차 전체회의에서 簡體字의 연구와 정리는 「教育部令으로 공포·실시되어야 하며」, 고서적을 재인쇄할 때 簡體字를 사용해 읽기 편리하도록 하고, 간체자를 정리할 때 새로운 글자를

19) 中央日報 1954년 3월 17일~20일, 단행본은 같은 해 같은 달 中央文物供應社에서 출판한 「簡體字運動」이 있다.

20) 汪學文, 「中共簡化漢字」, pp. 147~150.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 등을 제안했다. 何應欽은 「簡筆字彙輯」을 펴내고 총 747자를 수록했다. 이 의견 역시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의견은 簡體字가 임의로 자유롭게 발전하게 되면 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용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게되며 정부가 이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sup>21)</sup>

이상에서 설명한 두차례의 簡體字 건의를 볼 때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1) 何氏의 방법은 羅氏의 방식보다 광범하나 양자의 목표와 방식은 중공과 다르다. 이들의 목표는 한자를 보다 간편하게 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전면적인 개혁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한자의 라틴화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며 방식도 옛것과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것에서 채택하는 것이며 새로운 글자의 제조를 꾀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자의 공통적인 결함은 簡化에만 주력하여 문자구조의 합리성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羅氏는 「聲—聲, 禮—禮」 등 고유한 簡體字를 표본으로 했다. 그중에서 「聲」을 「聲, 聲」의 기본자로 하였으며 우선 「宀」을 첨가하여 「聲聲有聲」을 표시했다. 그런 뒤에 「石」을 첨가하여 發聲의 物을 나타내는 「磬」을 표시하였다. 다시 「耳」를 첨가하여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나타내는 「聲」을 표시했다. 「聲」은 원래 「聲」의 기본글자였는데 「磬」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古體를 회복하는 것과 같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禮」의 「豊」는 원래 「禮器」의 상형문자였으며 여기에서 「體, 禮」 등의 形聲字가 파생했다. 또 「示」를 첨가하여 「禮」로 표시했다. 그리고 「禮」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중의 「乚」가 造字상 합리적이지 못해 개인들이 사용할 뿐 관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었다.

(2) 반대인사들은 비록 한자구조원리에 따라 羅, 何氏의 제안을 반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자의 「字形」(Gestalt)의 작용이 특히 강해서 한자의 簡化에서도 整體의 可識性을 상실하지는 않았다. 또한 사용자들의 무

21) 同前註, pp. 150~155.

형의 잠재의식속에 이전되어 그 뜻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인 이치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들어 羅, 何氏의 제안에 반대했다.

(3) 羅氏의 글과 관련자료는 「중앙일보」와 「中央文物供應社」에서 출판되었으며 이 기관은 중국국민당의 산하 기관이다. 何氏의 의견은 국민당 10차 대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집정당이 건의를 잘라 거절하지 않고 또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면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론의 판단에 맡기고자 하는 현명한 처사다.

한자의 정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은 대만지역 사람들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들이다.

(1) 한자의 정리원칙은 i) 옛것을 살리지만 復古는 취하지 않으며 한자의 본원을 깨내 문화전통을 계승한다. ii) 합리성을 위주로 하며 기존의 단순한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iii) 질을 존중하지만 양을 제한하지 않는다.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2) 字形정리방법과 절차는 i) 異體字를 정리하며 合併할 때는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것을 택한다. 함께 사용하는 것은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ii) 표준 字形을 확정해야 하며 동일한 글자이거나 획이 다소 다른 것은 가장 합리적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 (3) 字義에 대한 주석

한자는 원래 本義, 引申義, 假借義의 구분이 있으며 시대, 지역, 개인의 사용습관의 상이성에 따라 字典, 辭에 대한 주석이 틀리고 뒤섞여 있다. 常用字와 의미가 달리 해석되고 있는 글자를 중심으로 의미의 정확한 주석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 (4) 字音의 획정

현실 상황과 관련시켜 그때 그때 한자의 注音을 수정하여 國語를 추진하는데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 (5) 字量의 명확한 조사

현재의 常用, 비상용 字數를 파악하여 문자정리 작업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sup>22)</sup>

위에서 언급한 것에 의거할 때 대만지역에서의 한자정리 공작은 상당한 성과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어문화학회」 등의 한자현황 검토, 건의에 따라 교육부가 표준字形을 공포하였으며 이미 「常用國字標準字體標」(4,808 자 수록), 「準常用國字體標準表」(6,341 자 수록), 「非常用字體標」(18,480 자 수록)를 출판했다.<sup>23)</sup> 이상의 3가지를 모두 합하면 29,629 자를 수록한 것이며 이는 한자정리의 기초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옛서적의 열람, 인쇄, 타자, 컴퓨터에 모두 응용될 수 있다. 기존의 字典에는 일체의 한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그중에서 삭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編者가 선택할 수 있다. 최근 편찬된 中華大辭典은 5만자를 수록하고 있는데 宋代的 丁度, 宋祁 등은 5만 3천 525 자를 수록하고 있다.<sup>24)</sup> 이처럼 오늘날의 한자가 예전보다 많아야 할 필요는 없다.

字義의 주석과 관련하여 중학교·국민학교의 國文·國語교과서에는 교육부가 초빙한 학자들이 검토하여 편성한 주석이 첨가되어 있다. 字典은 商務印書館의 辭源, 中華書局的 辭海에서 새롭게 수정·출판되었다. 三民書局이 독자적으로 출판한 大辭典 등도 훌륭하다. 高樹藩이 펴낸 新修康熙字典, 國民常用字典도 예전의 것을 보완하고 일상적인 한자를 많이 수록했다. 출판사업도 정치·경제·문화와 함께 크게 발전하였다.

字音의 수정과 관련하여 대만성 국어추진위원회가 47년 國音常用字彙를 근거로 國音標準彙編을 출판했으며 일부 학자들이 다시 보완했다.<sup>25)</sup>

22) 同前註, pp. 157~158. 필자가 원문을 인용하면서 약간 수정했음.

23) 교육부가 제정하여 발표한 것으로는 「常用國字標準字體表」(臺北:正中書局, 1983년), 「次常用標準字體表」(臺北:正中書局, 1983년 10월), 「罕用字體表」(臺北:正中書局, 1984년).

24) 張世祿, 「廣韻研究」(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69), pp. 242~243.

25) 「國音標準彙編」(臺北:開明書局, 1952년)에는 12,219字, 1,428音이 수록되었으며 개인이 이를 보충한 것으로는 方師鐸, 「增補國音字表」(臺北:開明書局, 1969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13,220字와 1,440音이 수록되어 있다.

대만지역에서는 국어가 보편적으로 쓰이면서 方言의 사용 역시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현명한 조치다.

異體字의 정리는 단번에 이루어 질수는 없으며 정치 역량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도 없다. 이는 각자의 用字습관에 따라 열람한 서적의 文字體에 의해 결정된다. 필자는 이것의 가능한 방법으로 광범위한 문자교육의 실시를 지적한다. 「文字學」은 예전에 「小學」이라 불렸으며 어린이가 학문에入門하기 위한 초보단계에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어져온 施教의 중점을 소홀히 하고 당시의 표준字體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문자구조의 원리와 변천을 경시했다. 이 때문에 文字에 많은 변형이 생겨났고 결국 繁體, 簡體에 관한 논쟁이 발생했다. 대만지역에서는 「文字學」이 중문학과의 필수과목이지만 기타 다른 어문계열이나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배우지 않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해묵은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 원래 文字學은 깊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쉽게 쓰여질 수 있으며 전반적인 한자체계에 관한 약간의 「初文」으로 채택될 수 있다. 즉 「會意, 形聲」 등 복합자의 「象形, 指事」字를 구성하여 중학교·국민학교의 교과서에 수록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그림과 글을 함께 사용하여 매년 학습하도록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자의 구조원리와 발전과정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느 글자가 옳고, 어느 글자가 繁體이고, 어느 글자가 常用字이고, 어느 글자를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밖에 文字와 관련된 여러 논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자발전 역시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다. 대만지역이 갖고 있는 현재의 여건, 예를 들면, 교사들의 자질, 경비, 사회환경 등은 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이미 40년 전 스웨덴의 한학자 高本漢이 강조했던 것이다.<sup>26)</sup>

26) 高本漢著, 杜其容譯, 「中國語之性質及其歷史」(臺北:臺灣書局, 1963년), p. 16. 原文을 보면 「일단 수백개의 간단한 象形字를 인식하고 나면 合體字의 인식문제가 남는데 만약 成年의 西方사람이 이 방법에 따르면 1년에 2천자 정도를 熟知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 2. 대륙지역의 한자 개혁

중국공산당이 조직되고 얼마 안있어 그들은 「漢字簡化」를 제시했으며 한자의 라틴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원래 중국공산당의 조직은 소련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서 사상과 행동상 소련공산당의 지도를 받았다.

공산당은 「문자의 장악은 진정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조건이며 위대한 10월 혁명에서 승리한 후 문자개혁 문제가 노동인민들의 수중에 들어왔다. ……이와같은 현대적 문자개혁운동은 10월혁명으로 시작되었다」<sup>27)</sup>라고 강조했다. 소위 정권의 장악은 소련공산당의 권력장악이며 이는 위성공산당의 정권장악을 제공했다. 이는 또 소련공산당의 위성공산당에 대한 장악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은 문자의 라틴화와 각 민족의 소련어 사용을 강조한 바 있으며 외몽고는 소련어의 字母를 사용하고, 터어키는 문자를 라틴화했고, 북한·월맹은 표음문자를 사용했다. 중국에서는 1931년 중국공산당원들이 赤化의 대폭표하에 소위 「北拉」(北方話의 라틴화를 위한 新文字)을 완성하였다.<sup>28)</sup>

소련이 세계 각 민족의 문자개혁을 통해 전세계 赤化를 기도했다는 것은 스탈린의 한 편지에서 분명하게 보여진다. 여기에서 스탈린은 「전세계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경과하여 사회주의로 향하고 더 나아가 공산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전 인류의 언어와 문자는 통일된 「민족어」에서 합작된 「區域語」로, 더 나아가 공동의 「世界語」를 실현해야 한다」<sup>29)</sup>고 말했다.

중공이 소련식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음은 毛澤東의 말에서 알 수 있다. 毛는 「중국인은 마르크스주의를 찾아낸 것은 러시아인들의 소개에 의한 것이다. ……10월 혁명의 포성은 우리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져다

27) 周有光, 「10월 혁명과 문자개혁」, 中共에서 출판한 〈文字改革月刊〉, 1957년 1월호, pp. 3~5.

28) 汪學文, 「中共文字改革」 pp. 31~36. 「中共文字改革演變」, pp. 54~57.

29) 「스탈린선집」 下권(北京:人民出版社, 1979년), p. 537.

주었다.»<sup>30)</sup>고 말했다. 또 한어·한자에 대해서 「文字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하에서 개혁되어야 하며 민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sup>31)</sup>고 말했다. 그후 다시 「문자는 반드시 개혁해야 하며 세계문자가 공동의 拼音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拼音化를 실현하기 전에 한자를 반드시 簡化하여 응용해야 하며, 민족언어의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간부는 普通話를 학습해야 한다」<sup>32)</sup>고 말했다.

毛는 원래 소위 「舊社會」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했으며 중국의 전통문화에 관한 글에서 「打到」와 「비판계승」<sup>33)</sup>을 언급한 바 있다. 그가 일생동안 행한 정치·경제조치에 관한 것들은 본 논문에서 토론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중국 語文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 추진에 打到와 「비판계승」을 혼동했다. 그는 한자拼音의 형식은 「민족적인 것이어야 하며 字母와 方案은 현재 한자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 「라틴어字母 혹은 슬라브어 字母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상을 타파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字母는 당연히 한자와 비교적 접근하는 것이어야 하며 중국의 音素를 정확히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sup>34)</sup>고 말했다. 그러나 중공은 일찌기 제정되었고 한자의 특색을 갖춘 「注音字母」를 받아들이지 않고 「國語로마자」까지 배척했다. 그러나 한동안의 모색을 거쳐 마지막으로 라틴화 字母를 선택했다.

(1) 앞에서 언급한 「北拉」은 중공당원 瞿秋白, 吳玉章 등이 소련 한학자 郭質生, 龍果夫 등과 1927년경 제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1931년에 완성되었다. 비록 북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스탈린이 주장한 지방어, 민족어에서 세계어로 발전해야 한다는 구상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瞿秋

30) “論人民民主專政”, 「毛澤東選集」第四卷(北京:人民出版社, 1964년), pp. 1, 474~1, 476.

31) “新民主主義論”, 「毛澤東選集」第二卷(北京:人民出版社, 1960년), p. 701.

32) 중공에서 출판된 「文字必須改革」(北京:文字改革出版社, 1974년), p. 9.

33) 同註 30), p. 688.

34) 中國語文雜誌社編, 「中國之文字拼音化問題」(上海:中華書局, 1954년), pp. 3~6.

白은 다시 「新中國文草案」을 마련하고 郭質夫와 1930년경 「중국어 자母的 라틴화 초안」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공작은 소련·중공의 협력하에 추진된 것이었다.<sup>35)</sup>

중공은 1927년 이후 수차례의 무장폭동을 실패하고 문화선전 등의 투쟁수단을 강화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문자개혁도 그러한 것이었다. 또 30년경 상해 등지에서 조직된 여러종류의 문예계 성격의 「좌익연맹」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중에서 魯迅을 중심으로 한 「좌익작가연맹」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大衆語운동」을 펼쳐 한자의 簡化和 라틴화를 기도하였다. 동시에 중공은 많은 단체들을 책동하여 方言의 라틴화방안 등 약 13종의 방안을 제정하였다. 여기에는 上海, 蘇州, 寧波, 廈門, 福州 등의 縣, 市와 四川, 湖北, 廣西省등이 포함되었다. 1937년 對日抗戰이 폭발한 후 중공은 항일합작의 명분하에 延安일대를 점령하고 세계어, 簡體字와 토속어의 라틴화 공작을 추진하였다. 그후 吳玉章은 자신들의 정책상 실패를 인정하고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는 실체를 벗어난 환상이다.……한자는 이미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깊은 기초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점진적인 것이어야 하며 마구 추진해서는 안된다.»<sup>36)</sup>

중공의 정권수립후 40년이 지났다. 한어의 라틴화를 위한 여러조치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漢語拼音方案」(1958년 2월 11일 정식공포)만이 있으며 이의 용도는 단지 과도시기에서 학교의 拼音字母, 普通話 교육과 社會의 普通話 확대 및 과학기술, 일상생활상의 운용에 있었다.<sup>37)</sup> 1986년 1월 中共 「語言文字工作會議」는 정식으로 「漢語拼音方案」은 漢字의 拼音 문자를 대체하지 않으며 注音도구로만 사용된다고 공포했다. 그러나 각종 간행물에 注音을 널리 사용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대만에서 출판된 여러

35) 汪學文, 「中共文字改革演變」, pp. 56~62.

36) 同前註, pp. 62~64.

37) 同前註, pp. 156~172.

종류의 注音간행물을 출판할 수 없었다. 객관적으로 말해 漢語, 漢字의 라틴화는 원래 위로부터 실시할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拼音方案」역시 좌절되었다. 「普通話」가 대륙에 널리 보급되지 못한 것은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대혁명」말기 江青을 중심으로 한 「4인방」은 劉少奇 일당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문자개혁에 관한 毛주석의 지시에 반대했으며 한어의 拼音방안이 라틴문자를 채택하는 것은 노예사상이라고 인식하고 한자의 簡體化 공작을 앞으로 커다란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공격하면서 문자개혁을 극심하게 파괴했다」고 강조했다.<sup>38)</sup> 사실이 그러하다면 劉少奇 등은 현명한 생각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추진상의 부진으로 대륙의 많은 국민학교에서는 아직도 方言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廣東省 교육부는 1984년 가을에서야 광동성의 국민학교 1학년에서 5학년까지 「普通話회화」를 개설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서 보통화 추진정책이 지지부진함을 알 수 있다.

(2) 한자의 簡體化는 중공이 한자의 라틴화를 실시하기 위한 교량이다. 대륙에서 40년간 이와 관련된 활동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중공이 펴낸 「編年記事」를 참고해 볼 만 하다.<sup>39)</sup>

이론적인 의거를 위해 중공은 소위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의 일부 논점을 인용하고 있는 데 이는 「언어는 계급성이 없으며 사회의 모든 계급을 위해 봉사한다」<sup>40)</sup>는 것이다. 중공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는 부호체계로서 문자자체는 계급성이 없지만 문자개혁공작도 선명한 계급성을 갖는다. 문자개혁 공작은 특전계급의 정치노선에 종속되며 그 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오늘날 우리들이 추진하는 문자개혁은 무산계급독재를 위해 봉사한다」<sup>41)</sup>고 강조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

38) 光明日報, 1973년 5월 10일.

39) 文字改革雜誌社編, 「建國以來文字改革工作編年記事」(北京: 文字改革出版社, 1965년), 여기에서의 記事는 1949년에 시작하여 1984년에 끝난다.

40) 스탈린, 「마르크스주의와 언어학문제」(中譯本)(北京: 人民出版社, 1953년), pp. 3~4.

41) 「文字必須改革」(北京: 文字改革出版社, 1974년), p. 4.

위 무산계급독재는 실제로 공산당 독재이다. 그리고 중공의 역사발전을 살펴볼 때 黨의 독재라고도 말할 수 없고 「當權派」독재일 뿐이다. 여기에서 볼 때 중공의 문자·언어개혁은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것이다.

추진과정에서 중공의 일부 인사들이 일정시기동안 한자의 실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목적은 여전히 한자의 「소멸」에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자의 소멸을 위해 일정 정도상 한자의 정밀성을 교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한자의 세밀한 구분은 완전히 그 자신의 가속적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교란해야 한다.」<sup>42)</sup> 중공이 「교란」에 용감하다고는 하지만 한자는 그 정밀성때문에 어느정도 교란된다해도 그 때문에 커다란 손상을 입지는 않는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듯이 중공은 절제하지 않을 수 없다.」

간략하게 말해 중공의 「中國文字改革研究委員會」가 1952년 설립된 후 곧이어 「漢字簡化方案」 작성에 착수했다. 1955년 1월 「草案」을 제출하고 10월중 「全國文字改革會議」에 교부하여 통과시켰다. 당시에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았으며 文改會가 이미 마련한 『漢字簡化方案』을 小組회의에서 투표로 표결했다.…… 小組 조장의 말을 빌리면 이는 상부의 결정이며 며칠을 허비했으니 거수투표로 이 방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었다.」<sup>43)</sup>

1956년 1월 26일, 중공 국무원은 정식으로 「漢字簡化方案」을 공포·시행했다. 이 방안은 다음과 같은 3가지 表를 포함하고 있었다.

첫째, 「漢字簡化第一表」로서 230자를 수록했다. (이는 繁體字 245자에 상당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臺로써 「臺, 樓, 廳」등을 대체했다)대부분은 유행하고 있는 新舊簡體字였다. 한자의 구조원칙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42) 張花, 「論中國文字改革的統一戰線」(上海: 東方書店, 1950년 7월), p. 29, p. 43.

43) 〈拼音月刊〉, 1957년 7월호, p. 22. 이 글은 북경대학 교수 陳定民이 1957년 5월 27일 文字改革問題座談會第三次會議에서 통과된 〈漢字簡化方案〉을 설명한 것임.

습관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가 적었다.

둘째, 「漢字簡化第二表」로서 285 자를 수록했으며 예전의 299 자를 대신 했다. 그중 31 자는 새로 만든 것으로 관용적인 것이 아니고 불합리하여 문제가 많았다. 예를 들면 「坛」이 「壇, 壇」을 「秆」이 「繅·織」 등을 대체 하였다.

셋째, 「漢字偏旁簡化表」로서 偏旁 54 자를 수록했다. 대개 行, 草書體를 사용해 楷體를 대체했다.

중공은 그 방안의 현저한 성과를 위해 한자의 획을 대량 생략했다. 예를 들면, 第一, 第二表에서 나열된 것의 원래 繁體字 총 획수는 8,745 획으로 每字평균 16.08 획이다. 簡化 이후 515 자의 簡體字는 총 4,206 획으로 每字평균 8.16 획이다. 두 表에서 10 획 이하의 글자는 簡化 이전 34 개였으나 簡化 이후 409 개로 증가했다. 11 획의 글자는 35 개이며 12 획 이상은 475 개에서 71 개로 감소했다. 만약 두표에서 偏旁의 簡化에 따라 살펴본다면 每字평균 6.5 획이 더 줄어들 것이며 이는 원래 한자 평균 획수의 40% 정도에 해당한다.

중공이 공포한 常用字 2천자에 관하여 언급하면 원래의 획총수가 22,375 획으로 글자당 평균 11.2 획이었다. 이중 簡化방안에 따라 簡化해야 할 것이 367 자이다. 다시 「제 1차 異體字정리표」에 따라 簡化병합해야 할 것이 30 자로 총 397 자이며 전체 常用字의 19.8%다. 즉 簡化후의 常用字의 총 획수는 19,560 획으로 글자당 평균 9.8 획이며 簡化 이전보다 글자당 평균 1.4 획이 줄었다.<sup>44)</sup>

획수가 감소했지만 方案이 수록하고 있는 글자가 제한된 것이고, 소위 「偏旁簡化」가 構字의 원칙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치 못하여 사용이 불편했으며 교육, 인쇄상의 많은 곤란이 야기되었다. 1964년 3월 7일 「簡化字總表」를 발표했다. 이 표의 第1表는 偏旁을 사용할 수 없는 簡

44) 중공이 발표한 통계의 종합적인 설명으로 汪學文의 中共文字改革演變 pp.105 ~106 을 참고.

體字 352 개를 수록했고 第2表에서는 簡化된 偏旁을 겸용하는 132 개 글자를 수록했으며 簡化된 偏旁 40 개를 함께 수록했다. 第3表는 第2表를 응용한 간체자와 偏旁을 簡化한 簡體字 1,754 개를 수록했다. 그 부록에서는 「異體字」 중에서 획이 비교적 간단한 글자(예를 들면, 迹, 蹟, 跡 중 迹을 표준으로 함)와 약간의 地名의 簡化(예를 들면, 陝西의 藍屋를 周至로 함)를 수록했다.<sup>45)</sup>

좀더 분석을 가하자면 「總表」가 비교적 많은 字를 수록하고 있는 것은 주로 偏旁의 이용때문이며 어떻게 造字를 했는가에 대한 시범적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공 당권자들은 스스로 커다란 성과라고 말하고 있다. 1977년 12월 다시 「第2次漢字化方案(草案)」(二簡草案으로 약칭)은 이전의 방안과 20년의 시간차가 있다. 이 안은 두개의 表로 구분되며 「第一表」는 193 개를 수록했는데 유추에 의해 만든 글자가 55 개이며 총 246 개다. 「第二表」는 269 개를 수록했으며 단독으로 字를 형성하지 못하는 偏旁과 유추에 의한 336 개 총 605 글자를 수록하고 있다. 초안 전체에 수록되어 있는 字는 853 개, 偏旁을 簡化한 것이 61 개, 한자를 簡化한 것이 263 개다.<sup>46)</sup>

비록 「二簡草案」의 수정방침은 「簡化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簡化하지 않는다」는 것과 약정에 의해 합리적으로 簡化한다」는 것이었지만 내용은 실제와 거리가 멀다. 일반적인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는다.<sup>47)</sup> 그러나 中共의 보도에 의거하면 이 방안은 제정에서 십의에 부쳐지기까지 「4 인방」의 방해를 받았다. 江青은 공개적으로 「우리는 현재 많은 簡體字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文盲이 되었다」고 주장했으며 張春橋는 직권을 이용하여 무리한 압력을 가했다.<sup>48)</sup> 이것이 사실이라면 劉少奇, 林

45) 「簡化字總表」(홍콩: 三聯書店, 1979년 3월).

46) 同前註 부록편 「第2次漢字簡化方案」 pp. 33~40.

47) 汪學文, 「中共簡化漢字演變」, p. 109.

48) 同前註, 人民日報 1977년 12월 24일 社說 「加快文字改革的待仗」, 光明日報 1977년 12월 20일 社說 「符合群衆願望的一件大事」.

彪 등을 비판했던 「4인방」도 그 政敵들과 한자개혁에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4인방을 물리치고 들어선 중공의 지도층은 「二簡草案」을 최후로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1979년 6월 중공 全人大와 政協전국위원회는 공동으로 제안을 내고 앞으로 「二簡草案」의 시행중지를 결정했다. 대륙에서 한자사용상의 혼란이 야기된 후 그 휴유증이 심각하다. 繁體, 簡體, 異體 등이 범람하고 官에서 제정된 것과 私적으로 제정된 것들이 서로 뒤섞여서 큰 혼란을 이루고 있다.

1985년 12월 16일 中共 국무원은 「文字改革委員會」를 「國家語文字委員會」로 개칭하였는데 이는 「文字改革」을 이미 중단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IV. 결 론

대만, 대륙의 40년간 語文발전을 볼 때 중공이 대륙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은 사실상 불필요한 일이었고 또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효과를 얻을 수 없었고 결국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된 주요 원인은 매우 많은데 언어학적인 단점에서 말하자면 인식의 부족이었으며 한자를 반드시 소멸시켜야 하고 拼音을 해야만 한다고 오해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조차 무시했다. 지식분자들이 제기한 의견들은 매번 채택되지 않았다. 대륙의 語文人才들이 비록 많았지만 그존의 의견에 부합하는 의견만을 제시했으며 異議者는 매번 화를 면치 못했다.

중공은 매번 소련이 對內外적으로 추진한 라틴화가 성공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소련은 境內의 각 민족에게 라틴화를 실시했으며 1940년대에는 러시아어문을 채택하게 하고 최소한 라틴문자를 사용하게 했다. 터키는 1928년 라틴어 字母를 채택했으며 외몽고는 1946년에 러시아어문의

字母를 채택했다. 또 북한도 1948년 拼音을 전용하기 시작했으며 월맹은 1945년에 언어의 拼音化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들이 이와같은 개혁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역량의 영향이나 문화적 기초, 인구의 다과의 원인 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언어 자체가 원래 拼音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字母만을 고쳐 사용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소련 경내의 우즈벡, 카자흐 등의 소수민족과 원래 중국에 속해 있던 외몽고, 혹은 한자를 사용했었기는 하지만 언어를 拼音化할 수 있는 기초를 갖고 있는 월맹등은 중국의 경우와는 다르다.<sup>49)</sup>

중공은 한국이 오랜전부터 갖고 있는 「諺文」, 일본의 「假名」 및 양국이 한자를 簡化한 이론적 의거를 인용했다.<sup>50)</sup> 그러나 한국, 일본의 언어는 한어와 달리 拼音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시했다. 북한을 제외하고 대한민국과 일본은 同音詞가 많으며 많은 한자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양국의 한자 簡化는 약간의 단어만을 차용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한자체계의 완벽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월맹을 예로들면 프랑스의 장기간 지배를 받으면서 라틴화를 추진했지만 아직도 한자문화의 영향이 존재한다. 필자는 월남의 前대통령 吳廷琰이 쓴 七言絕句를 본 적이 있으며 월맹의 胡志明 역시 七言絕句를 썼다.

중국에서 영문이 유행한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며 毛澤東도 다소의 단어를 알 것이다. 영문으로 注音符號를 표시하면 한 측면을 알 수 있다(K.K. Jones 와 같이). 서방인사중에는 「表意문자」로 표음문자를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Andre Eckart 교수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Picto를 창조했다. 그는 새로운 「詞字체계」를 이용해 일종의 「普遍性(Universal)」 문자를 만들고 이로써 拼音체계를 대체하고자 했다.<sup>51)</sup>

49) 同註 27). 본문에서 인용한 것은 원자료를 축약한 것임.

50) 陳文彬, “漢字影向下的一些東方民族的文字”, 「中國文字改革問題」(上海:中華書局, 1954년), pp. 97~102.

51) Fromkin & Rodman, An Introduction to Language, pp. 359~360.

결국 언어의 실제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언어·문자의 개혁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들인 노력에 비해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대만지역은 국어의 추진, 語音의 訂正, 字體의 심의결정을 하면서 한결 같이 정부와 민간, 학자와 대중들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커다란 실적을 올렸다. 그 성과는 이미 문화·경제 등에 광범한 영향을 미쳤다. 한마디로 말해 사회가 점점 민주·자유스러워짐에 따라 모든 것은 현실의 사태발전에 따라 진보하게 된다. 앞으로 대륙에서의 여러가지 변화는 민주·자유에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필자는 한자문제의 해결은 우선 한자의 인식에 달려있음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한자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임의로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 아무런 성과없이 힘을 허비할 뿐이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